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중국경제의 부문별 현황과 전망
- 2019년 경제성장률 6.5% 달성 어려울 듯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중국경제의 부문별 현황과 전망

- 2019년 경제성장률 6.5% 달성 어려울 듯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최근 중국경제 주요 현황	3
3. 시사점	15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신 흥 시 장 팀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박 용 정 선 임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 정 원 연 구 원 (2072-6239, garden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경제의 부문별 현황과 전망

■ 개요

2018년 중국 경제는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중 통상 갈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확대에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2018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며, 1분기 6.8%, 2분기 6.7%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정자산투자, 제조업 경기 등 투자 및 산업 부문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2018년,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IMF, OECD, World Bank, ADB 등 4대 기관 평균)은 각각 6.6%, 6.3%로 2017년 6.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 부문별 현황을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최근 중국경제 주요 현황

① 소비 :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만 소비잠재력 제고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방식이 확산되면서 9%대의 소비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GDP에서의 최종소비 비중도 5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와 농촌간의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소비 품목에서는 화장품, 자동차, 금·은·장식구 등의 소비 증가율도 2018년 들어 크게 둔화되고 있다. ② 투자 : 전반적인 투자부진 속 부동산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중국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9%로 하락하면서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5.4%에 그쳤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토지공급이 2018년 9월 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41.8%가 증가하고, 동기간 부동산 신규착공면적 및 개발투자액 증가율도 각각 9.9%, 16.4%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투자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다. ③ 산업 : 업황둔화와 함께 기업부문 부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18년 들어 중국의 공업기업 생산경기 체감지수가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5년 연평균 9%를 기록하다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2018년 9월에는 5.6%로 하락했다. 또한 국유기업과 외국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6년부터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 들어 둔화세로 전환됐다. 올해 8월까지 제조업 영업이익의 증가율도 전년동기 대비 -13.5%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고, 10대 산업 영업이익의 증가율도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산업경기 둔화와 함께 기업부문의 부채 문제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④ 대외교역 :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교역의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수입액 증가로 인해 2018년 3분기 854억 달러로 직전분기인 2분기 909억 달러, 전년동기 1,123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투자은행(IB)에 따르면 미·중 통상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 경쟁력 확대 및 선진국과의 통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공무역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총교역액 대비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 48.6%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8년 1~8월 누적기준 26.6%까지 축소되었다. ⑤ 금융 : 위안화 약세 및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 불안정

성 확대가 우려된다. 최근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약세, 주가지수 하락 등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018년 3월(중가) 6.29위안에서 9월(중가)에는 6.88위안까지 상승하며 위안화 가치는 약 8.6% 절하했다. 상해종합지수 및 심천종합지수의 연초대비(1월 2일 대비 10월 19일) 하락폭은 각각 23.8%, 34.1%에 달해 2018년 들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이다. 다만,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외국인 채권 투자는 1월 약 1.30조 위안에서 9월 약 1.75조 위안까지 증가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식투자의 감소폭은 소폭 확대된 상황이다.

(종합평가) 중국은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초과 달성은 가능하겠으나, 투자 및 산업업황 둔화와 미중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6.5%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안착을 위해 '소비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실행할 계획이다. (투자)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지만, 중앙정부의 개발예산 집행 및 부동산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산업업황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략적 신흥산업의 시장진출이 진행되는 등 구조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교역) 대미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은 제한적이겠지만, 가공무역 감소 등으로 교역구조 업그레이드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 위안화 가치 절하, 주가지수 하락 등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전망 >

구 분	내 용
소 비	- (현황) 소비중심의 경제이지만, 소비의 잠재력 제고가 다소 지연 - (전망) 소비진작 등을 위해 개인소득세 기준 완화 단계적으로 1억 명 규모의 도시호구 등록 지원 등 전망
투 자	- (현황) 투자부진 속 질적 개선 기대, 부동산 투자 재개 움직임 - (전망) 공공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 꾸준히 전개 예상
산 업	- (현황) 주요산업의 업황둔화로 기업부채가 다시 증가 - (전망) 전략적 신흥산업 등 중점산업 육성, 기업투자 적극 지원 전망
대외교역	- (현황) 대미 통상갈등으로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기대는 어려운 상황 - (전망) 수출기업 세금환급, 일대일로 연선국가 수출 확대 등 예상
금 융	- (현황) 위안화 가치 절하,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전망) 안정적인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 금융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시사점

중국경제의 단기간 내 급격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인 하향세 및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중국 소비시장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對중국 진출 전략도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산업, 중장기 인프라투자사업 등에도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산업 혁신역량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이 요구된다. 넷째, 위안화 환율 변동성, 중국기업들의 대규모 디폴트 등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우리 금융시장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1. 개 요

○ 2018년 중국 경제는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미·중 통상 갈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확대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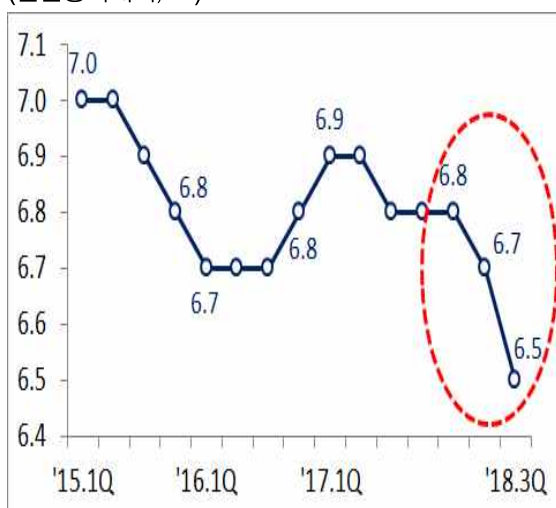
- 2018년 들어 중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흐름

- 중국 경제는 2015년 1분기 7.0%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6년 1분기 6.7%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 이후 6.8~6.9%대 성장을 지속
- 하지만, 2018년 1분기 6.8% 경제성장 이후 2분기 6.7%, 3분기 6.5%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주요 4대 기관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경제성장은 6%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2018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에 2018년 6.6%, 2019년 6.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4대 주요 기관의 평균 경제성장 전망은 2018년 6.6%, 2019년 6.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國家統計局.

< 주요 기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8(E)	2019(E)
국제통화기금 (IMF, 10월)	6.6	6.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9월)	6.7	6.4
세계은행 (World Bank, 6월)	6.5	6.3
아시아개발은행 (ADB, 9월)	6.6	6.3
평균	6.6	6.3

자료 : IMF, OECD, WB, ADB.

○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 및 소매판매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및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는 소폭 둔화되는 흐름

- 2018년 3분기 수출, 소매판매 증가율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중이며,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흐름

· 소매판매 증가율(누적기준)은 9월 9.3%, 수출은 9월 14.5%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다만,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누적기준)은 2018년 상반기 6.0%에서 9월 5.4%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더욱이 중국 제조업 PMI 및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등은 소폭 하락하는 등 산업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

· 제조업 PMI는 5월 51.9p를 기록한 이후 9월 50.8p로 약 1.1p 하락하였지만 기준치인 50.0p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

· 공업부문 부가가치 증가율(누적기준)은 2월 7.2%에서 6월 6.7%, 9월 6.4%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흐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 부문별 현황을 중심으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 주요 경제지표 변화추이 >

(단위 : 증가율 %, p)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1~9월)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6.9	7.0	6.9	6.7	6.7	6.7	6.9	6.9	6.9	6.7
소매판매	10.7	10.4	10.7	10.4	10.3	10.4	10.2	10.4	10.2	9.3
고정자산투자	10.0	11.4	10.0	8.1	9.0	8.1	7.2	8.6	7.2	5.4
수출	-2.9	0.5	-5.8	-7.7	-9.6	-6.1	7.9	7.7	8.0	12.2
제조업 PMI	49.9	50.1	49.8	50.3	49.8	50.8	51.6	51.5	51.8	51.2
공업부가가치	6.1	6.3	6.1	6.0	6.0	6.0	6.6	6.9	6.6	6.4

자료 : 國家統計局, CEIC, Bloomberg.

주1) 각 지표는 상, 하반기, 1~9월간 누적 기준임.

주2) 제조업 PMI지표는 평균치 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2. 최근 중국경제 주요 현황

① 소비 :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소비의 잠재력 제고가 지연

○ 다양한 형태의 소비방식이 등장하면서 중국 경제에서의 소비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인터넷 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방식이 확산되면서 9% 대의 소비 증가세 유지

· 중국 인터넷쇼핑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최근까지 꾸준히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인터넷쇼핑/소매판매 비중 : '16년 12.6% → '17년 15.0% → '18년9월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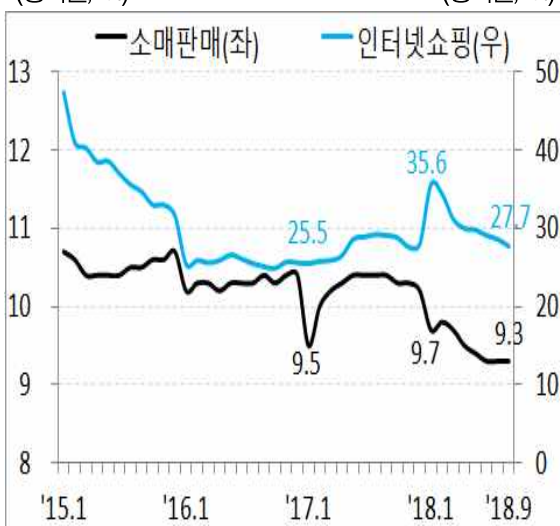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전체 소매판매도 9%대의 견조한 증가율을 유지

- 이에 따라 GDP에서의 최종소비 비중은 50%를 상회하면서 꾸준히 증가

· 2017년 연간 중국의 최종소비액은 43.5조 위안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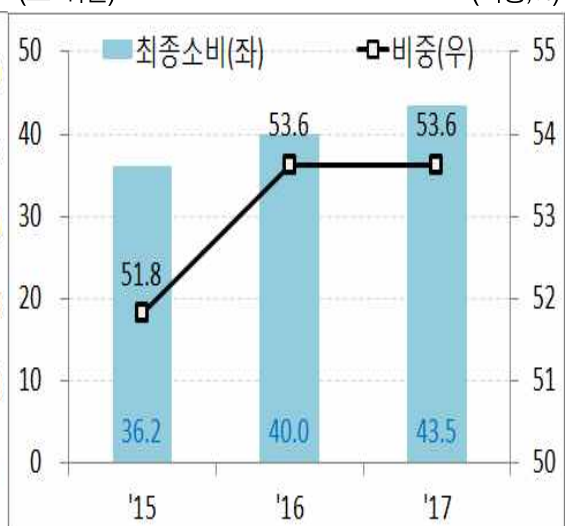
· 최종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뒤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17년에는 53.6%를 기록

< 중국 소매판매 · 인터넷쇼핑 증가율 >
(증가율, %)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電子商務研究中心.

< 최종소비의 GDP대비 비중 >
(조 위안)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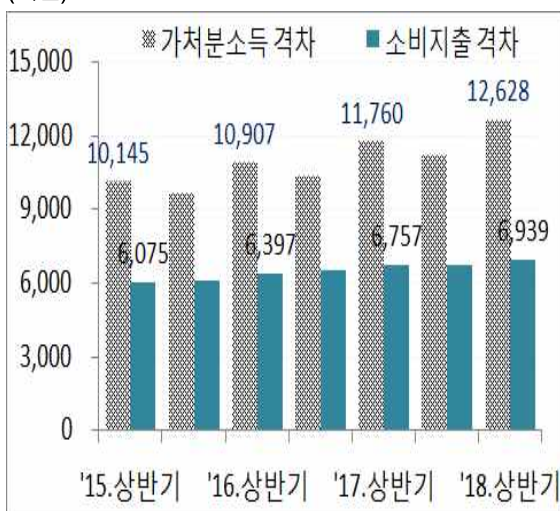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비중은 최종소비/GDP 비중을 의미함.

○ 반면, 도시·농촌 간 소득 및 소비 격차도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 잠재력 제고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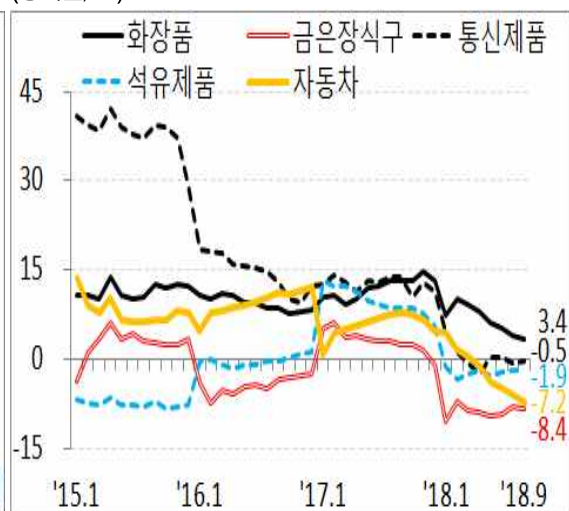
- 중국의 도시와 농촌간의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등 소득·소비 수준의 차이가 점차 확대
 - 도시와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액 격차는 2015년 1만 위안 수준에서 최근에는 1.2만 위안으로 확대
 - 동기간 소비지출의 격차도 6천 위안 선에서 7천 위안 가까이로 확대
 - 즉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큰 개선이 없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또한 소비 품목에서 화장품, 자동차, 금·은·장식구 등의 소비 증가율¹⁾은 2018년 들어 크게 둔화
 - 화장품의 소비 증가율은 2018년부터 둔화 양상을 보이면서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4%에 그침
 - 또, 자동차, 금은장식구 등 품목의 소비 증가율도 2018년 9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각각 7.2%, 8.4%씩 감소

< 도시·농촌 간 1인당 소득 및 소비 격차 >
(위안)



자료 : 國家統計局.

< 주요 품목 소비 증가율 >
(증가율, %)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해당 5개 품목의 소비액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47.6%를 차지 (2017년 기준).

1) 소비증가율은 '매출액 일정 규모이상 기업'의 소매판매액 기준인데, 일정규모란 제조업 및 도매업은 2,000만 위안 이상, 소매업은 500만 위안 이상, 음식숙박업 및 기타 산업은 200만 위안 이상을 의미함.

② 투자 : 전반적인 투자부진 속 부동산 공급은 증가

○ 건설투자 및 국유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고정자산 투자도 빠른 둔화세를 보임

- 2018년 들어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둔화세가 가속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최근 5%대로 둔화
-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7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증가율도 2018년 9월말까지 누적기준으로 2.9%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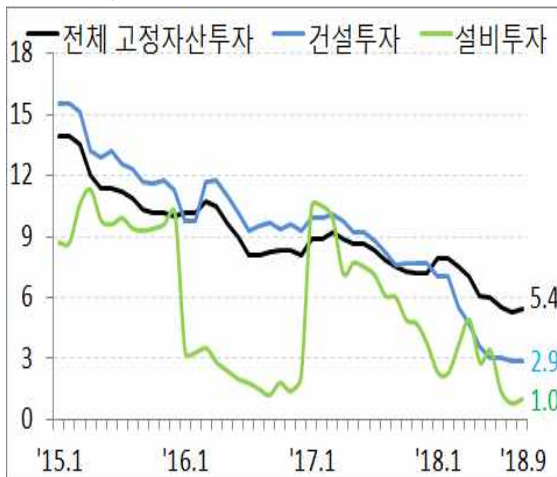
※ 인프라투자 증가율(평균) : '16년 16.1% → '17년 14.9% → '18년(1-8월) 3.8%

-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7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바, 2018년 9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에 그침

- 투자 주체별로 볼 때, 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은 다소 회복 추세를 보임

- 중국의 국유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7년부터 급격히 둔화되면서 최근 3개월은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 반면, 민간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8년 9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15.2%를 기록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편, 외국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8년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2017년의 마이너스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추세임

<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월별 누적금액에 대한 증가율임.

< 기업 유형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월별 누적금액에 대한 증가율임.

○ 반면, 부동산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토지공급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부동산 재고는 해소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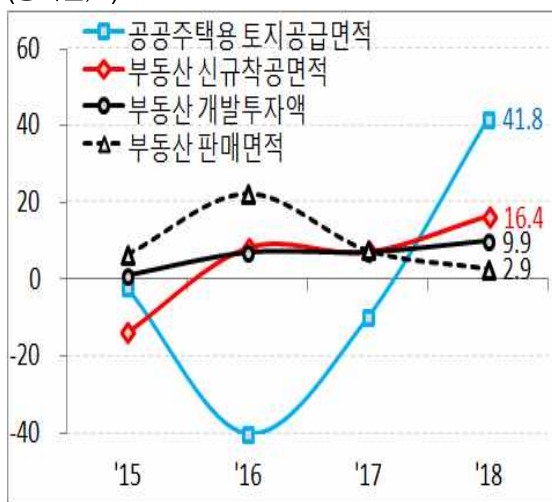
- 부동산 부문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토지공급 및 부동산 신규착공과 개발 투자가 회복세

- 2018년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공공주택용 토지공급은 전년동기 대비 41.8% 증가하면서 플러스로 전환
- 동기간 부동산개발투자액도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하였고, 신규착공면적 증가율도 16.4%를 기록
- 한편, 동기간 부동산 판매면적은 2.9% 증가에 그치면서 증가세가 둔화

- 부동산 부문에서도 부동산 재고소진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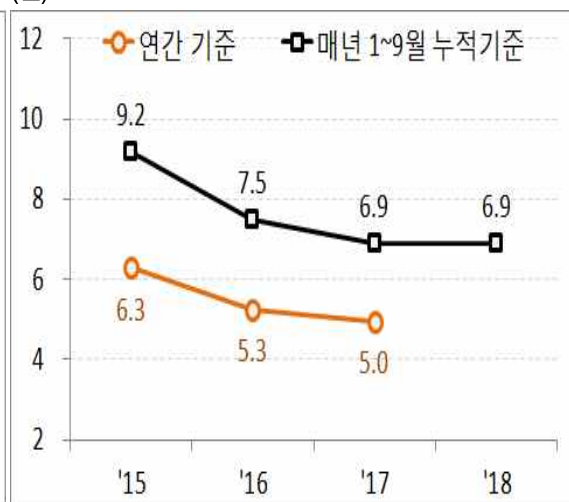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중국의 부동산 재고소진주기는 5년으로, 2년 전보다 1.3년이 단축
- 매년 1~9월 누적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5년 1~9월 기준 9.2년에서 2018년 1~9월 기준 6.9년으로 2.3년이 단축됨
- 다만, 부동산 토지거래, 신규투자 및 착공 등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낸 만큼, 향후 부동산 재고누적에 압력으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중국 부동산 관련 지표 추이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2018년은 1~9월까지의 누적기준임.

< 부동산 재고소진주기 >
(년)



자료 : 國家統計局 자료로 HRI 계산.
주 : 재고소진주기 = 판매면적/(미분양면적+시공면적).

③ 산업 : 업황둔화와 함께 기업부문 부채문제 부각

○ 최근 중국 산업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빠른 속도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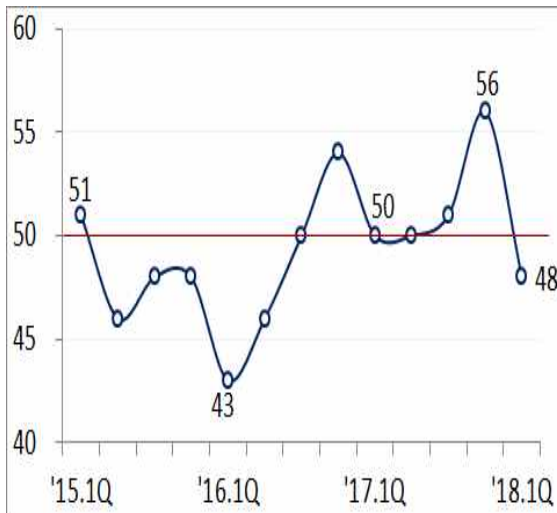
- 2018년 들어 공업기업의 생산경기 체감지수가 하락

- 올해 1분기 공업기업(광업, 제조업)의 생산경기 체감지수는 48p를 기록해 56p를 기록한 2017년 4분기 대비 8p 하락
- 생산경기 체감지수는 2016년 3분기 이후 기준치인 50p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에 따라 6분기 만에 50p를 하회

- 민간기업, 국유기업 등 기업 유형별 부가가치 증가율도 2018년 들어 소폭 둔화세

- 민간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5년 연평균 9%를 기록하다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2018년 9월에는 5.6%로 하락
- 국유기업과 외국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6년부터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둔화세로 전환

< 중국 생산경기 체감지수 추이 >
(p)



자료 : Bloomberg.
주 : 경기체감지수는 50p를 넘으면 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 기업 유형별 부가가치 증가율 >
(증가율, %)



자료 : 國家統計局.

○ 최근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 감소와 더불어, 기업부문의 부채도 다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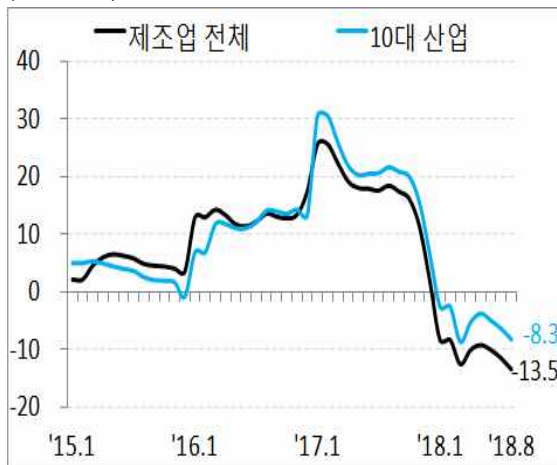
- 산업 업황 둔화와 함께 주요 산업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크게 둔화

- 올해 8월까지 제조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3.5%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 10대 산업²⁾ 영업이익 증가율도 8월말기준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기기계, 일반설비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4%, -18.5%를 기록

- 2018년 1분기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중도 164.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비금융기업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6년 2분기 166.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부채 감축 노력에 따라 2017년 4분기까지 감소
-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산업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 발발에 따라 부채 감축 추진이 사실상 지연되면서 올해 1분기 기업부채 비중이 164.1%로 반등
- 기업부문의 부채비중이 다시 늘어나면서 중국의 전체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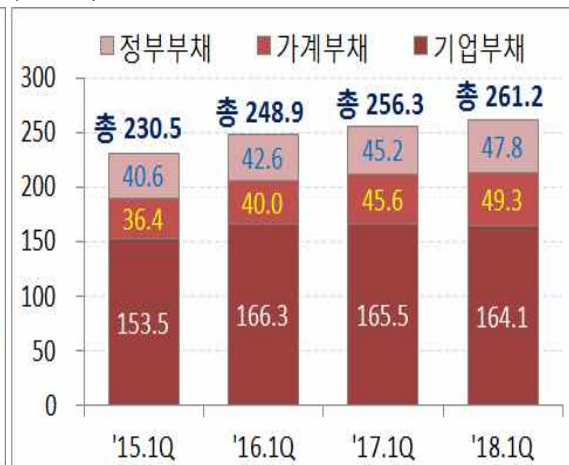
< 주요산업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 주1) 제조업 10대 산업은 2017년말 영업이익 기준 상위 10대 산업을 의미함.
 주2) 2017년 기준, 10대 산업 영업이익은 전체 제조업의 63% 차지.

< 부문별 GDP 대비 부채 비중 >
(비중,%)



자료 :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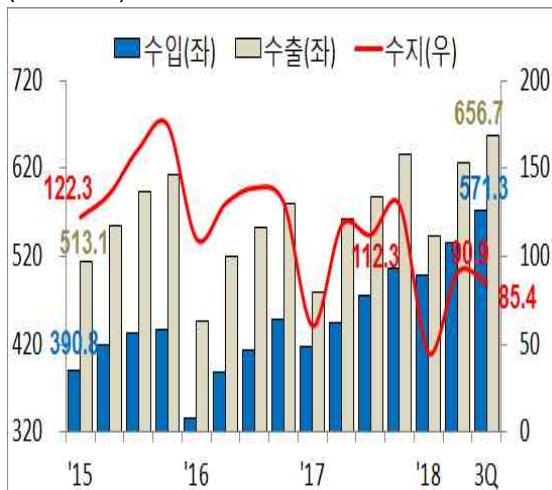
2) 제조업 10대(2017년 영업이익액 기준 상위 10대) 산업은 화학, 제약, 비금속, 금속제련, 금속제조, 일반설비, 전문설비, 자동차, 전기기계, 통신장비를 포함함.

④ 대외교역 :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교역의 구조적 개선 노력 지속

○ 미·중 통상 갈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수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수입액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2018년 3분기 수출액은 약 6,567억 달러로 전년동기 약 5,881억 달러를 상회하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
 - 수입규모는 2018년 3분기 5,713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다만,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8년 3분기 854억 달러로 직전분기인 2분기 909억 달러, 전년동기인 2017년 3분기 1,123억 달러를 크게 하회
- 2017년 이후 대외거래의 수입액 증가율은 수출액 증가율을 상회
 - 2018년 9월 수입 및 수출 증가율은 각각 14.3%, 14.5%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하는 흐름
 - 특히, 2017년 이후 수입액 증가율은 수출액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2017년 12월, 2018년 2월, 9월 제외)하는 등 수입액 규모 및 증가세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 중국 무역수지 추이 >
(십억 달러)



자료 : 海關總署.

<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증가율, %)



자료 : 海關總署.

주 : 달러 기준 월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대외무역의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

- 최근까지 미국은 對중국 수입품에 총 2,500억 달러, 중국은 對미국 수입품에 총 1,1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
 - 지난 9월 18일 미국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 5,745개 품목에 달하는 10%(2019년 이후 25% 상향)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도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품목에 5~25% 관세 부과를 공표한 상황
 -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규모는 각각 총 2,500억 달러, 총 1,100억 달러에 이르며 갈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대 및 선진국과의 통상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공무역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음
 - 과거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으로 가공무역³⁾을 확대하였으나, 2000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 품목 지정 등 비중 축소를 위한 정책들을 도입
 - 이에 따라, 2000년 총교역액 대비 가공무역의 비중은 48.6%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8년 1~8월까지 누적기준 약 26.6%까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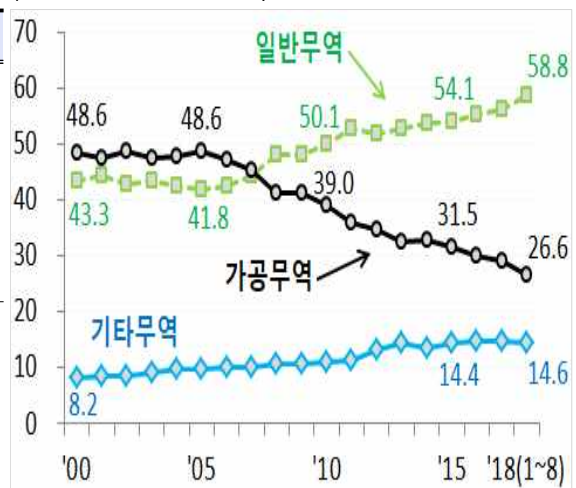
< 미·중 통상 갈등에 따른 GDP 파급 영향⁴⁾⁵⁾ >

기관	주요 내용
국제통화기금 (I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對중국 2,000억 달러, 중국의 對미국 600억 달러 관세 부과 시 - GDP 규모는 장기적으로 세계 약 0.1%, 중국 및 미국 약 0.3% 감소
투자은행(IB) 10개 기관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對 중국 관세 부과 장기화될 경우 - 경제 성장률 세계 0.4%p, 중국 0.7%p, 미국 0.5%p 하락

자료 : IMF, 국제금융센터.

< 중국 가공무역 비중 추이 >

(총교역액 대비 비중 %)



자료 : 海關總署 자료로 HRI 계산.

주1) 총교역액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2) 자세한 분류기준은 [부록] 참고.

3) 원재료, 반제품 등을 수입하여 가공 및 제조 후 완제품 형태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Challenges to Steady Growth』, October 2018.

5) 국제금융센터, 『미중 무역 분쟁 향방 및 영향』, Issue Analysis, 9월 12일 2018.

⑤ 금융 : 위안화 약세,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 불안정성 확대 우려

○ 최근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위안화 약세, 주가지수 하락 등이 지속되는 흐름

- 2018년 이후 미·중 통상 갈등 지속, 실물경제 둔화 우려 등의 요인으로 위안화는 큰 폭으로 가치 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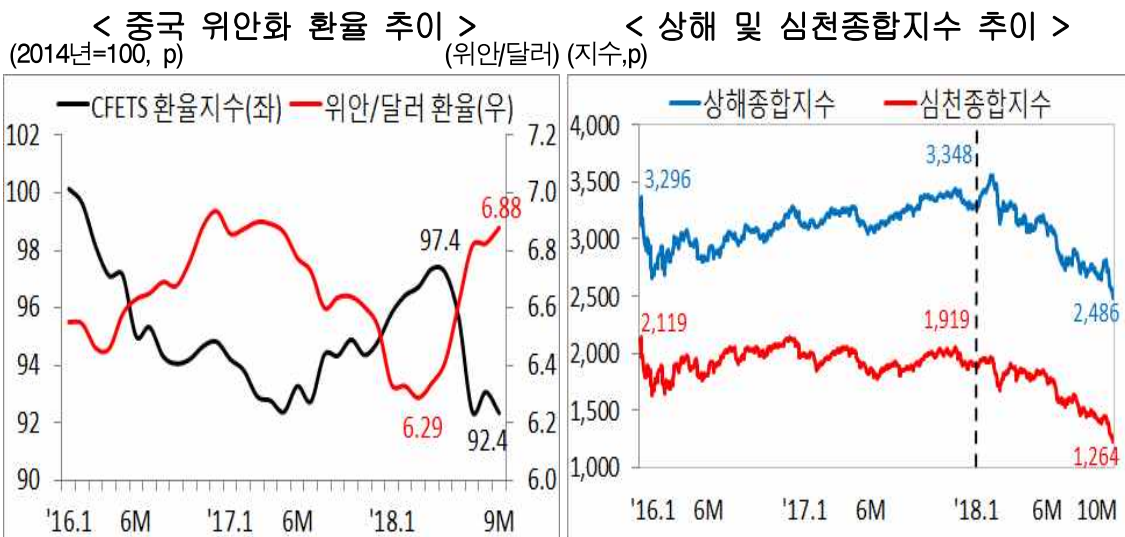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018년 3월(종가) 6.29위안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국과의 통상 갈등 심화 등의 요인으로 9월(종가) 6.88위안까지 상승하며 위안화 가치는 약 8.6% 절하

· 중국외환거래센터의 위안화 환율 지수(CFETS RMB Index)⁶⁾ 역시 4월 97.4p에서 9월 92.4p까지 약 5.0p 하락하며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속됨

- 2018년 들어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등 주가지수 하락세도 지속

·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각각 2018년 연초(1월 2일) 3,348p, 1,919p 수준이었지만, 10월 19일 각각 2,486p, 1,264p까지 하락

· 상해종합지수 및 심천종합지수의 연초 대비 하락폭은 각각 약 23.8%, 약 34.1%에 달해 2018년 들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



자료 : 中國外匯交易中心, 中國人民銀行.
주 : 위안/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자료 : 上海證券交易所, 深圳證券交易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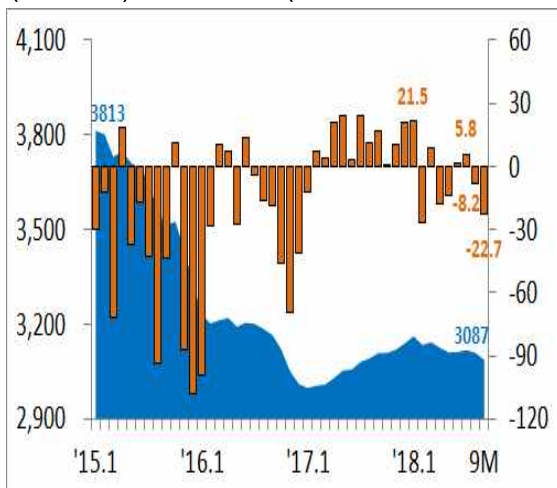
6)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24개 대상국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위안화 환율 지수. 통화바스켓 비중은 달러화(22.4%), 유로화(16.3%), 엔화(11.5%), 원화(10.8%) 등으로 구성됨.

○ 중국은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의
주식 투자 감소폭은 소폭 확대

-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9월말 기준 약 3.09조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월대비 증감폭은 8월 82억 달러, 9월 227억 달러로 2개월 연속 감소
 - 다만,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 국가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중국 실물경제 둔화 우려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대처할만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
 - ※ 2018년 8월말 주요국 외환보유액 : 1위 중국 31,097억 달러, 2위 일본 12,588억 달러, 3위 스위스 8,001억 달러, 4위 사우디아라비아 5,096억 달러, 5위 러시아 4,606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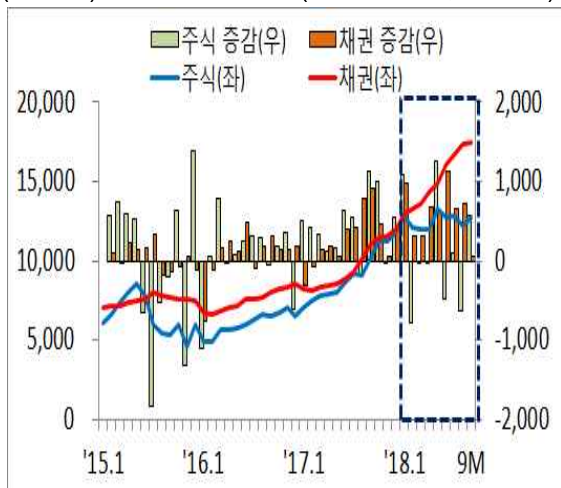
-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식 투자의 감소폭은 소폭 확대된 상황
 - 2018년 외국인 채권 투자는 1월 약 1.30조 위안에서 9월 약 1.75조 위안까지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증가폭은 6월 1,125억 위안, 7월 651억 위안, 8월 713억 위안, 9월 57억 위안으로 하락 추세
 - 외국인 주식 투자는 2018년 9월 약 1.28조 위안으로 연초(1월, 약 1.28조 위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월대비 감소폭은 6월 485억 위안, 8월 632억 위안으로 최근 소폭 확대되는 모습

< 중국 외환보유액 및 증감 추이 >
(십억 달러) (전월대비증감, 십억 달러)



자료 : 中國人民銀行.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 추이 >
(억 위안) (전월대비증감, 억 위안)



자료 : 中國人民銀行.

⑥ 종합평가

○ (종합평가) 중국은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이상 달성은 가능하겠으나, 투자 및 산업업황 둔화와 미중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은 6.5%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소비)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안착을 위해 '소비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실행할 계획

- 중국은 농촌부문의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도시와의 수준격차가 벌어지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인 소비여력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
-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였고, 향후 단계적으로 1억 명의 도시 이주를 지원할 계획

- (투자)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지만, 중앙정부의 개발예산 집행 및 공공주택 중심의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도 안정세 유지 전망

- 최근 인프라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강한 하향세를 견인
- 그러나 지역 개발격차 해소 및 올해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정부의 사업발주, 재정투입 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증가율의 빠른 하향세는 제한적일 전망
- 또한, 서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 개발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부문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도 다소 낮은 상황

- (산업) 산업업황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략적 신흥산업의 시장진출이 진행되는 등 구조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최근 산업업황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기업부문의 영업이익 등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다만, 올해 들어 하이테크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 등 국가중점산업의 시장진입이 빨라지고, 해당 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도 적극 유치하는 등 향후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2018년 1~8월 누적기준, 하이테크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1.9%, 8.8% 기록

- (대외교역) 대미 통상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은 제한적이겠지만, 가공무역 감소 등으로 교역구조 업그레이드가 지속될 전망
 - 최근 중국의 대외교역은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전체 무역흑자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 중·저소득 국가들과의 교역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점차 신흥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적인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이면서 수출입 구조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
- (금융)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위안화 가치 절하,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통상 분쟁 지속, 미국 금리 인상 기조, 중국의 실물 경제 둔화, 신흥국 경제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위안화 환율은 가치 절하가 지속
 - 세계 1위 수준의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규모가 유지됨에 따라 향후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입 등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전망 >

구 분	내 용
소 비	- (현황) 소비중심의 경제이지만, 소비의 잠재력 제고가 다소 지연 - (전망) 소비진작 등을 위해 개인소득세 기준 완화 단계적으로 1억 명 규모의 도시호구 등록 지원 등 전망
투 자	- (현황) 투자부진 속 질적 개선 기대, 부동산 투자 재개 움직임 - (전망) 공공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 꾸준히 전개 예상
산 업	- (현황) 주요산업의 업황둔화로 기업부채가 다시 증가 - (전망) 전략적 신흥산업 등 중점산업 육성, 기업투자 적극 지원 전망
대외교역	- (현황) 대미 통상갈등으로 지속적인 수출증가율 기대는 어려운 상황 - (전망) 수출기업 세금환급, 일대일로 연선국가 수출 확대 등 예상
금 융	- (현황) 위안화 가치 절하,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전망) 안정적인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급격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 금융 리스크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3. 시사점

- 중국경제의 단기간 내 급격한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인 하향세 및 구조적 변화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첫째, 중국 소비시장 및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對중국 진출 전략도 대응이 필요함
 -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중국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 지역별 소득 및 소비 성향에 맞는 제품 포지셔닝 및 가격 전략 등 맞춤형 진출 전략 필요
 - 특히, 최종 소비재 부문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이자 한·중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관세인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
- 둘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업종, 중장기 인프라투자 사업 등에도 진출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자국 투자부진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상황
 - 따라서 자국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소매, 유통, IT, 건설 등 분야에서의 진출 전략 마련도 검토
 - 또한, 향후 중국 내에서는 동부와 중·서부를 잇는 신 실크로드 라인 형성으로 중서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과 凡아시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진출도 적극 검토
- 셋째, 중국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산업 혁신 역량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이 요구됨
 - 중국의 수출산업은 단순 조립을 넘어 IT와 제조업을 융합한 고부가 제조업으로 빠르게 변하는 상황
 - 이에 따라 우리도 중국 수출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이 시급
 - 특히, 對중국 단순 상품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
- 넷째, 위안화 환율 변동성, 중국기업들의 대규모 디폴트 등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우리 금융시장의 모니터링도 필요

- 위안화/달러 환율 변동에 의한 원/위안화 환율 파급영향을 상시로 파악하여 對중국 위안화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손실 가능성에 대비
- 또한, 중국의 신탁업무 규제 강화 등으로 그림자 금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업황 부진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
- 이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계 자본의 단기간 내 이탈 가능성도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한 상황 **HRI**

신 흥 시 장 팀 한재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박용정 선 임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이정원 연 구 원 (2072-6239, gardenlee@hri.co.kr)

【부록】 중국의 가공무역 분류기준

- 중국의 가공무역은 크게 내료가공과 진료가공, 출료가공 등으로 분류
 - 내료가공(來料加工: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ith Customer-supplied Materials) : 외국기업이 중국 가공무역기업에게 무상으로 재료를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친 후 완/반제품을 수출하여 임가공비만 수취하는 형태
 - 진료가공(進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Impored Materials) : 중국 가공무역기업이 해외에서 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가공 및 조립한 뒤 완/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
 - 출료가공(出料加工: Processing Trade with Expored Materials) : 중국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단계 중 일부 기술이 없어서 해외의 다른 기업에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여 완/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

< 중국의 가공무역 분류기준 >

구 분		화 물 무 역 방 식
일반 무역		일반무역 화물 (一般貿易)
가공무역	내료가공	보상무역 화물 (補償貿易)
		내료가공조립무역 화물 (來料加工裝配貿易)
	진료가공	진료가공무역 화물 (進料加工貿易)
	출료가공	출료가공무역 화물 (出料加工貿易)
기타 무역		무상지원 및 증정 화물 (國家間、國際組織無償援助和贈送的物資)
		위탁대리판매무역화물 (寄售代銷貿易), 국경소액무역화물 (邊境小額貿易)
		가공무역수입설비 (加工貿易進口設備)
		외주하청 및 노무청부 계약 수출 화물 (對外承包工程出口貨物)
		임대무역 화물 (租賃貿易)
		외자기업투자설비 화물 (外商投資企業作爲投資進口的設備、物品)
		면세외환화물 (免稅外匯商品), 면세품 (免稅品)
		보세창고출입국 화물 (保稅監管場所進出境貨物)
		보세창고보관통과 화물 (海關特殊監管區域物流貨物)
		수출가공구수입 설비 (海關特殊監管區域進口設備)
		역화무역 화물 (易貨貿易), 기타 화물 (其它商品貿易方式)

자료 : 中國海關統計諮詢網.